

이 절임 배추의 다른 이름은 '나눔 배추'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고민 하나가 바로 명절 선물이다.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평소 고마운 지인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불자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추천한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환원 활동에 매진한다. 특히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발의해 2010년 10월 설립된 '연우와함께'는 불교계 사회적 기업으로 자체 상품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사회적 기업 상품을 대행판매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연우와함께 '절임배추'

"지난해 절임 배추로 김장을 했는데 정말 수월했어요. 장시간 쪄고 앉아 다듬고 절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던지, 김치소만 준비해서 버무리면 시간 부담도 없고 편하죠." 주부 김정아 씨(39,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얘기다. 김 씨는 올해도 절임 배추로 김장을 할 계획이다. 김정아 씨는 김치를 사서 먹을 때와 달리 안심할 수 있고, 가족 입맛에도 딱 맞출 수 있어 좋으며 만족감을 표했다. 최근 절임 배추로 김장을 하는 주부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추세다. 농협 도매사업단에 따르면 절임 배추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대로 매년 10% 이상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판매와 생산자 직거래 물량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시장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바야흐로 절임 배추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김장을 하려면 배추를 다듬고 10시간 정도 소금물에 담가놓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간이 잘 배도록 배추를 뒤집어주는 등 절이는 데만도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절임 배추를 쓰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한결 수월하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배추 절임 공간이 없어 육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임 배추를 쓰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황숙자 씨(76, 서울 성동구 옥수동)는 "김장에서 배추 절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며느리와 아이들의 권유로 처음 절임 배추를 사용할 때 망설였지만 다 같이 웃으면서 김장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며느리 이영주 씨(40)는 "시아머니가 김장을 하자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웠는데 절임 배추를 사용하면 불평이 끊어졌다. 오히려 간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연례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맛 좋고 건강한 '해남 무농약 절임 배추' 해남은 전국 겨울 배추 생산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해풍을 맞으며 탄실하게 자란 해남 배추는 달면서도 아삭하고 육질이 단단하기로 유명하다. 연우와함께에서 지

난 캠페인에서 판매한 '해남 무농약 절임 배추'는 맛 좋은 해남 배추를 신안 천일염으로 절인 것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농약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김치를 담으려는 주부들에게 제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웬만한 살림 고수가 아니고선 배추를 알맞게 절이기란 쉽지 않다. 소금의 농도와 절이는 시간에 따라 절임 배추의 짠맛과 아삭함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절임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연우와함께 관계자는 "해남 무농약 절임 배추는 10년 이상 절임 배추 사업을 해온 생산자들이 만든 것"이라며 "다년간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온 만큼 믿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공과 보람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주)연우와함께

(주)연우와함께는 밝고 건강하고 바른 소비문화를 구현하고자 '착한소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서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하며, 그 이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웃, 사회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회적기업 (주)연우와함께는 사회의 변화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낯익은 문제에서 참신한 해법을 제시하며, 그 이익은 사회에 환원함을 모토로 합니다. 또한 그 해법은 자원연계를 통한 사·지 창출'에서 찾습니다.

연우와함께
www.lotuscoopmail.com
검색창에 연우와함께를 입력하세요
☎ 전화주문 가능 ☎ 02) 720-7393-4

친환경 소량물
친환경 제품 및 먹거리 판매

학교급식사업
인자리 창출
마을을 통한 수익의 50%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

소비
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 식사 제공

운영
40~60대의 개인회생자를 절로 대상으로 우선고용하여, 직원은 취약계층 우선 고용

부채료
국내산 농산물

김치
시장에서 생산된 배추로, HACCP인증받은 불건업소에서 가공

환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1회 무료급식,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인연우와함께
(주)연우와함께는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모두가 나누는 것이 가치를 추구합니다.

불교계 사회적 기업 연우와함께(Lotuscoopmail.com)에서 구매하면 회원가입 시 1%할인 및 적립 혜택을 받거나 공익사업에 지정 기부 할 수 있다.

연우와함께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회적 기업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올 추석에는 사회적 기업 상품 구매로 이웃을 위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떨까.

교동한과 오죽헌
2단 유과, 강정, 한들곡식, 정과, 다식, 매자과, 약과 100,000원

고려홍삼정과
30g*10개입 60,000원

2011년 소백산반태양초 '햇' 고추가루
시중가의 20% (가격 문의)

영평사지옥염세트
(小) 분말50g, 알갱이 50g*2, 휴대용 25g 45,000원
(大) 분말170g*2, 알갱이1701g, 휴대용25g 122,000원

모싯잎송편
동부가 통째로 들어있는 모싯잎 송편
4.5kg이상(72개) 40,000원

올래은갈치
1호 600g이상 16팩 196,000원
2호 400g이상 8팩 132,000원

해다미
해다미는 사회복지법인 다문화가 운영하는 지정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천연 발효 식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해다미 2종 세트 38,000원
500ml x 2병

바리의꿈 '차가버섯청국장'
바리의꿈은 연해주 고려인 구호활동과 고려인 농가의 안정적 자활사업을 위해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

차가버섯 청국장 선물세트 35,000원
차가버섯청국장가루 250g, 차가버섯청국장완 250g, 연해주유기농된장 500g, 휴대용 차가버섯 청국장완

독도 쿠키
독도쿠키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수제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독도만주 A형 70,000원
만주 20개, 쿠키 10종(초코아몬드, 샤브레, 데블스, 단호박, 녹차호두, 백년초, 초코칩, 우리보리, 검은깨, 쇼콜라 아몬드)